##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자기 안에다 모든 것을 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봅시다. 지구에 관한 건도 옛부터 활동하고 시각적으로 움죽거리던 장소가 지금 장소와 둘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도 우리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노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놓는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하는 그것이 방하착(放下着)이라면 첫째, 모든 잡념과 전자에서부터 얻은 그 습성을 다 녹여버리고 자기의 그 참 생수맛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차적으로 자기를 다시 한 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다음에 세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툴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재차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을 살림살이에서 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주 놔버리는 데, 맡겨놓고 사는 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온갖 작동을 하면서도 그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운전수에 모든 것이 달려있듯이 모든 걸 거기에 맡겨놓음으로써 전자부터의 자기 종문서를 몰락 태워버릴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탄생했을 때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 세상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이 솟아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이것이 걸맞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재해서 거기다 다시 놔야 되는 법입니다. 밖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안팎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면을 다 쥐고 갈피를 잡고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됐다는 걸 번연히 안다면 이것을 믿고 들어가라. 믿지 않는다면 상대가 걸리고 상대가 걸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믿고 상대가 없다면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소릴 들었다 저기에서 저 소릴 들었다, 저걸 봤다 이걸 봤다 했을 때에 믿지 못하면 나는 어떠한 말을 한다, 행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라면, 둘로 보지 않았다면, 믿는다면 '아, 그렇기도 하겠지. 고정됨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안에다 모든 것을 굴려서 '아, 어찌 저렇게,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러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될까?' 하고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세 단계가 없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리를 거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같이 죽어서 같이 나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러분이 선원에 오시는데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만 구제를 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디 앉아있는 거나 서있는 거나 고정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살림살이처럼 남편이 급하면 급한 대로 나가서 뛰다가 사흘도 못 들어오고 나흘도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은 바빠서 돌아치는데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말입니다, 제때에 밥도 못 먹고, 제때에 잠도 못 자고, 참, 피로한 몸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들어온 사람더러 말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나는 죽도록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당신이 좀더 집에서 잘해줬으면 자식들과 모든 것이 평안할 거를 왜 당신은 나가서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 전에는 안 그러더니 맘 변했다.' 이거거든. 그러나 남편은 그게 아니라 제 속을, 나가서 일하는 걸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또 만약에 말을 해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는 말이라면 말을 못하는 거라. 그렇다면 말을 못하고 나를 믿어라,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될 거다 이러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믿어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믿어진다면 아무 말 대상이 없는 거야.

아,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잘 알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국내 돌아가는 것도 알고, 모든 거를 보고 알죠. 그러면서 답답하게 마음을 좁게 생각하면서 내 생활이나 가정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걸리는 일들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선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몸뚱이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일할 때에는 말도 그렇고 몸뚱이도 그렇고 그것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림 · 최주현

때에 따라서, 그냥 순간순간 급하게 돌아가면서도 여러분을 만나주는 이 마음들을 좀더 생각해 본다면 어떠할까? 좀 지혜를 넓힌다면 어떠할까?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을 생각하고 셋을 생각하고 넷을 생각하고 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유리할까? 여러분을 위해서지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누구나가 목탁이나 쳐주고 염불이나 해주고 얼굴이나 봐주고 말이나 조금 해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도 편안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알지 못하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그걸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좁게 생각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또 스님네들, 보살님들, 보살행 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면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인도해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카버해 가면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죽이나 아쉽지 않고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시대가 바뀌져서 호국불교나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은 가만히 놔두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봐서 어떠한 것이 제일 문제일까요? 그걸로 말미암아 '저 스님은 뭐를 하기에 그러나?' 하고 의정을 가지고 한번 관(觀)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안으로 굴려봐야지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돌아오면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을 한 번 뛰어넘을 수가 없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참 지혜를 넓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그 마음과 모습과 이 뜻이, 장소와 모든 것이 전달이 돼서 지구가 생겼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수화풍 네 친구가 동업을 해서 회사와 같이 형성을 해가지고 그걸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쪽쪽이 나누다 보니까는 대천세계(大千世界)니 중천세계(中千世界)니 소천세계(小千世界)니 이런 문제가 나왔고, 오늘날에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행성이 생겼고 은하계가 생겼고 또 우주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모든 형태나 모든 작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자력으로써 돌아갈 때는 무전자력,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한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전자력과 전자력, 또는 유전자력 그것이 한데 합쳐지니까 원자력으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원자력에서 나가는 그 자체로 인간이 형성된 거와 같이, 좀 다르지만 말을 하자면 그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에서 그 힘으로써 작동하는 데는 삼단계가 있다, 인간에게도 있고…. 우린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작동하는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다,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 그 물이, 액체가, 찬 물의 액체나 더운 가스의 액체가 한데 어우러져서 나올 때는 1Km에 한 점 빠지는 그런 거리마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벌어졌다 오무러졌다 합니다. 이 지구 자체의 그 내막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차가 돌아가는데 차 안에 그냥 서있듯

☞22면으로 계속

세계불교 초대법왕

# 일붕존자 서박사 경보 대종사

## 탄신 93주년 열반 11 주기 일붕대재 봉행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사해불자 여러분의 법체강녕을 삼보님전에 원력비옵니다.
사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음력 5월 초 아흐렛날은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셨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창종주이신 일붕존자의 탄신일이고, 또 기제일인 일붕대재일이기에 금년의 일붕대재는 일붕존자의 탄신지인 제주도의 일붕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봉행코져 하오니 일붕종도와 일붕문도 여러분은 물론 인연있는 사해불자 여러분들도 수희동참을 바라옵니다.

주 최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주 관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주종무원
후 원 : 일붕전국문도회

### 아 래

◆ 일 시 : 입재 - 불기2551(07)년 6월 21일(음 5월 7일) / 회향 - 불기2551(07)년 6월 23일(음 5월 9일)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산 15-8번지 한라산 일붕동산
◆ 연락전화 : 제주종무원(보현사) ☎ 064)794-0511

### 일붕대재 봉행위원회

▣ 대 제 주 : 봉 암 (종정)
▣ 고 문 : 일붕문도회 고문단, 명예회장단 , 일붕문도회 회장
▣ 제 례 위 원 : 동명(원로위원) 청곡(원로위원)
일붕문도회 부회장단, 일붕문도회 자문위원단
▣ 봉행위원장 : 법철(총무원장)
▣ 봉 행 위 원 : 도화, 일암, 현각, 법운, 법보, 무정, 효봉,덕암, 일선, 도일, 법원, 상묵, 진소, 지연, 동월, 청원, 대공, 월광, 왕연, 정각, 효산, 종호
▣ 집전위원장 : 서병열(문도회 사무총장)
▣ 집 전 위 원 : 황공심, 최묘심, 배상광, 이종근, 윤봉안, 최용국,서정안, 최창배, 장혜철, 최해월, 전혜명, 박교덕, 헤진, 김덕기, 이혜심, 최무송, 현도원, 법작, 송덕성, 유석근, 임창만, 허순애, 최혜숙, 최승부, 이호성, 배상환, 이영선, 최명자, 최명순, 김수임, 서두엽, 이종근, 배준성, 김미영, 한순남, 김부삼, 고성규, 이존영, 김진태, 김부삼, 김춘옥
▣ 준비위원장 : 영수(일붕선교종 제주종무원장)
▣ 준 비 위 원 : 경운, 고광, 불각, 연각, 대성, 경철, 도연, 대원, 일각, 대원, 원경, 철공, 남전, 윤각, 귀일, 현오, 도각, 현오, 법일, 자림, 미산, 명각, 수철, 자각, 제법, 관일, 혜동, 자광, 향봉, 해산, 금강, 현송